부산양산금속노동자 4

발 행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발행일 : 2026년 4월 10일

부산시 동구 자성로 141번길 13 402호 / 051-637-7433 / 050-4926-0288

▲지난 16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의원들이 14기 1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지부 집단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시동건다

14일 중앙교섭, 16일 지부집단교섭 상견례 예정

중앙교섭 ·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2026년 중앙교섭 요구안]

- 인공지능(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 보호
-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한 정년퇴직
-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
- 금속산업 최저임금
  - 통상시급 11,540원
  - 월 통상임금 2,608,040원

[2026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

-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
- 임금인상
- 기본급 149,600원
- 지부 협약 개정 요구
- 선거관리위원회와 지부 감사위원 활동시간 확대
- 중앙교섭 참여 요구

[2026년 사업장 교섭 필수요구안]

-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중앙, 지부집단교섭 참가

2026년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오는 14일과 16일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14기 1년 차 중앙교섭과 지부 집단교섭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중앙교섭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대응. 정년에 따른 소득공백 개선방안. 노동 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초기업교섭 활성화. 전환의 시기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도다.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은 단순하다. 이유는 지난해 간부 파견을 핵심에 두었다면 올해는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참여사업장 확대가 핵심이다. 지부 간부 파견 쟁취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더 강하고 기본이 튼튼한 부산양산지부를 만들기 위한 요구다.

올해 지부집단교섭, 지난해 간부 파견 쟁취라는 역사를 만들었듯 올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초석을 세우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일 하이록코리아지회가 11차 교섭 끝에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참여' 단체협약에 노사의견일치했다. 이외도 고용안정을 위한 조항도 의견일치했다. 지회는 향후 지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시 찾은 노동절, 가자 노동자 시대로!

부산, 노동절대회 전포대로에서 14시에... 대회 후 시청으로 행진

노동절유래영상

2025년 11월 11일,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3년 박정희 독재정이 노동자의 주체성을 지우기 위해 강제로 명칭을 바꾼 지 62년 만에 쟁취한 역사적 승리이다. 2026년 5월 1일, 이제 우리는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던 응어리를 풀고 당당하게 ‘노동절’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명칭의 회복은 단순히 글자를 바꾼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노동절은 고용형태에 따라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일해야 하는 ‘반쪽짜리 휴일’이었다. 그러나 명칭 변경과 함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으로써,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교사, 공무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우리의 끈질긴 투쟁으로 다시 찾은 ‘노동절’!

단순한 휴일을 넘어, 고용형태에 따른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 노동절의 역사, 투쟁으로 일군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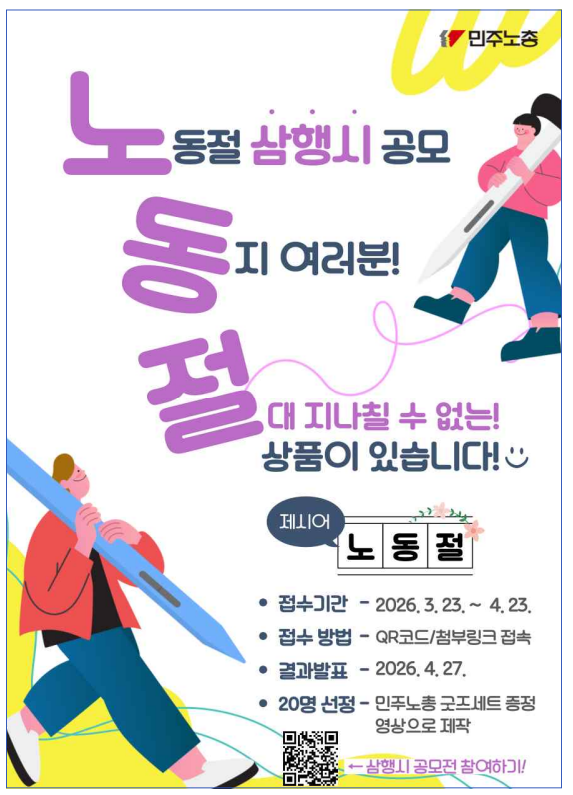
세계노동절(May Day)의 뿌리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이에 맞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장의 기계를 멈췄고,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진리를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려워한 자본과 정권이 헤이마켓 광장 폭발사건을 일으켜 지도자들이 사형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의 불꽃은 짓밟아도 들불은 끌 수 없다”는 그들의 정신은 1890년부터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메이데이 투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절 역시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하며 이어져 왔다.

1923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조선노동연맹회’ 주도로 첫 노동절 행사가 열렸으며, 해방 직후인 1946년에는 20만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대한 투쟁의 장이 열렸다. 그러나 독재정권은 끊임없이 노동절을 지우려 했다. 이승만 정권은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꿨고, 박정희 정권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세탁하며 주체적인 노동자의 의식을 지우고 노동자를 정권의 부속품으로 취급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1989년 ‘노동절 전통 회복’을 선언하며 끈질기게 싸워왔다. 1994년 날짜를 되찾은 데 이어, 마침내 2026년 우리는 온전한 이름과 공휴일 권리까지 모두 되찾았다. 이 모든 역사는 노동자들의 헌신과 피어린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많은 내용은 민주노총 교육지 참조

https://nodong.org/data_paper/7927234